

한진중공업, 국내 최고의 공항 건설 전문가

제2여객터미널 서편 골조 및 마감공사 낙찰 총 공사금액 5천184억원 규모



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조감도(우측 원이 서편)
2 2015년 준공한 오만 두름공항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병모)은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핵심 공사이자 지난해 공공공사 최대어로 꼽히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골조 및 마감공사(서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2020년을 마무리했다.

총 공사금액은 약 5천184억원이며 한진중공업은 49.79%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는다. 주요 공사 내용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인 제2여객터미널 서편 원의 증축과 입·출국장 및 수화물 처리층 신설, 원격 계류장 2개소 신설 등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8개월이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통해 공항 공사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한진중공업은 심사 항목 중 공사수행 능력에서도 만점을 기록한 것은 물론 금액심사에서도 단가 감점 없이 통과했다. 이와 함께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에서도 최고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동편과 서편에서 모두 1순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공항 건설의 역사와 함께한 스페셜리스트

국내 공항 건설의 역사는 한진중공업이 창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1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청사를 시작으로 제주·김해·청주·인천·울산·양양·대구·포항·광주·무안 공항 등 대한민국에서 한진중공업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공항이 없다. 특히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에서 첫 공사인 방조제

공사, 부지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접근도로 공사까지 거의 모든 공정에 참여해 국내·외에서 공항 건설 전문업체로서의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자랑했다.

이러한 성과로 한진중공업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식에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이후 2단계 공사인 탑승동, 3단계 공사인 제2여객터미널 신축과 전면도로 공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해외에서의 공항 건설 실적 또한 만만치 않다. 세계적으로 공항 건설의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괌,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오만 등 세계 각지의 주요 공항 건설에 참여해 공항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50년 역사의 경험, 세계 공항 건설의 선두주자 도약

한진중공업은 50여 년간 쌓아온 국내에서의 실적과 경험으로 국내 공항 건설 선두주자의 자리를 굳히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글로벌 공항 건설에도 그 명성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전문 인력과 공항 건설의 종합 수행 역량,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 공항 시공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와 중동지역을 비롯해 더욱 영업력을 확대한다면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❶